

Sermon of the Week: The Cross That Restores All Creation



Passage: 1 Corinthians 2:1-2 (ESV)

Date: October 12, 2025

Pastor: Dong Suk Chung

When God created the universe and everything in it, He made all things beautiful, harmonious, and perfect—nothing was unnecessary or out of place. As Scripture says, “His invisible attributes, namely, his eternal power and divine nature, have been clearly perceived, ever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in the things that have been made” [Romans 1:20]. Every created thing fulfills its purpose of revealing the glory of God. Birds are perfect in the sky and fish are perfect in the sea—each within the realm assigned by God.

But the tragedy of the universe began when man, the crown of creation, left his rightful place. The result of this original sin was death and even the earth came under a curse. Man, who is a creature made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attempted to become his own creator, which was an act of rebellion against God’s will. As a result, God’s created order collapsed and the entire universe was placed under the judgment of destruction amidst chaos and groaning.

Those who have become the embodiment of Satan have lost their sense of who they are. Instead, they identify with the possessions and careers they have acquired through their own efforts; believe in the theory of evolution, which states that monkeys are the ancestors of humans; and live without true hope or purpose.

Yet through His Word, God declares

that He made man in His own image and likeness. There is no greater word of hope and life than this. God created man with a clear purpose—to be united with Him and to live in oneness with Him. Our purpose is to reveal God through that union. We were created to bear His image, to act as His representatives: glorious and blessed beings made to display His character.

However, through sin, mankind lost both the position and the character necessary for union with God. Thus, God sent His Son into the world. Jesus became one with us and was nailed to the cross in order to put to death the self that came from eating the fruit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the “I” that stands against God. When Jesus died on the cross, “I” died there with Him.

The only way for us to become one with Jesus is through the cross of Christ. In His death, the old self is gone; in His resurrection, we receive new life in God. Through this truth of the cross, God calls us His sons. The old has passed away; in Christ, we have become new creations.

Just as Jesus overcame Satan’s temptations by remaining faithful to His position as man, we must also understand that our worries and anxieties cannot be resolved by gaining more from the world. True peace comes when we deeply realize that we are sinners: made of dust and incapable of anything on our own. At the place of death, the cross where Jesus was crucified, all fear and anxiety disappear. Where there is death, there is resurrection; where there is surrender, God’s life begins to flow. Though our problems may appear in many forms, there is only one solution: the self that

ate the forbidden fruit must die. Dying on the cross is the way to live, the way to become one with God, and the way to eternal life

When Jesus cried out, “Eli, Eli, lama sabachthani—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Matthew 27:46], He was crying out on our behalf. The “I” that was born through sin has been God’s enemy from the beginning and has destroyed the order of His glory. Therefore, it must die: that is the path to eternal life. The more we realize that we are sinners who deserve death and that Christ has resolved everything through His own death, the more freely we can say “amen” to God’s Word. Every word from God is life and carries the power of creation. When “I” am denied, the Lord comes to dwell in me and fulfills His work of creation and redemption.

Through Jesus Christ, even the earth and the universe that were cursed because of sin are restored. When the truth of the gospel reconciles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man, it also brings healing—to relationships among people, to worldly concerns, and even to the natural world. This is the life of one who reigns with Christ. As we abide in Him, our surroundings are brought into order and peace.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becomes the vessel through which creation is ruled and restored.

Like Paul, who declared, “I decided to know nothing among you except 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 [1 Corinthians 2:2], may we come to deeply believe—by the Holy Spirit—that the death of Jesus is our death and His resurrection is our resurrection.

심니소식

니싱교회



심싱교회

10월 26일, 2025년

NASUNGCHURCH.NET

78 호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날짜: 10월 12일, 2025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것 없이 아름답고 조화로우며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롬 1:20)”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새는 하늘에서, 물고기는 바다에서 각기 자기 영역 안에서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비극은 우주의 주인 공인 사람이 자기 위치를 떠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공중의 새가 바다의 물고기를 보고 ‘나는 불완전한 존재구나’라고 불만을 갖는 것이 저주인 것처럼, 사람이 꺾임에 빠져 자신의 위치를 떠남으로 죄가 되었습니다. 이 원죄의 결과는 죽음이며, 땅도 함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은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 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이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온 우주가 무질서와 탄식 속에서 멸망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체현이 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자신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은 소유를 정체성으로 삼고,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라는 진화론을 믿으며 참된 소망과 목적 없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소망과 생명을 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존재,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영광스럽고 복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될 인격과 그 위치를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선악과를 먹고 생긴 ‘나’라는 존재를 죽이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내가 그 자리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나와 예수가 하나 되는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죽음으로 옛 사람은 사라지고, 부활로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십니다. 옛 나는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람의 위치를 지킴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짐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먼지요 흙으로 지어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깊이 알 때 참 평강이 옵니다. 죽음의 자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에서 모든 염려는 사라집니다. 죽음이 있을 때 부활이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문제의 형태는 각기 다르게 보이지만 해결은 하나입니다. 선악과 먹은 ‘내’가 죽으면 됩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곧 사는 길이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신 것은 곧 나의 소리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생겨난 ‘나’는 평생 하나님의 원수이며, 하나님의 격을 파괴시킨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임을 알고, 주님이 나 대신 모든 것을 죽음으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쉽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이며 창조의 능력입니다. 내가 부인될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와 저주받은 땅과 우주 만물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 물질과 환경의 문제도 주 안에서 해결됩니다. 이것이 다스리는 자의 삶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주변이 정복되고 정돈되며, 자연까지도 다스리는 몸 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백한 바울처럼,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며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이 진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깊이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삼성교회 연락처

- +82 02-2293-4421
- <http://samsungch.or.kr>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지하 1,2층)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0분	3층 예배실

중보기도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포항 등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 올해 11월에 있을 요한계시록 집회를 위해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담임목사님의 한국의 모든 일정과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
- 고원창 집사(여호수아) - 함암치료중인데 stroke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중임.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요청함.
- 이성희 자매 (1여선교회) - 교회에서 넘어져 팔의 접골 부상을 입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세리토스 구역)
- 심순근 권사 (모세회) - 폐 염증이 심하고 호흡이 어려우신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 송제인 집사 (1여선교회) - 항암치료와 수술, 회복과 병원 비용이 보험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를 위해
- 김상준 형제 (4,5 남선교회) - 위암으로 항암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시용 장로 (모세회) - 담석수술과 패혈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회복을 위해
- 한아림 자매 (청년회) -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서인숙 권사 (한나선교회) -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 김묘자 권사 (모세회) - 천식이 재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 김폴리 자매 (3여선교회) -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수영 장로 (여호수아회) - 무릎 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회복과 건강을 위해
- 김영자 집사 (모세회) -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 최지민 자매 (1여선교회) - 유방암과 림프 전이 및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해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김옥경 집사 (82세) -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현숙 집사 (61세) -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심한 귀 통증이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신자 집사 - 자녀들 (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권오중 집사 (47세) -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장현주 집사 - 신장 기능 저하(40% 정도)와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장 약을 먹을 때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신장 기능과 당뇨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영희 자매 (60세, 도봉구역) - 궤양성대장염으로 20년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연희 집사 - 허리 디스크 탈출과 협착증으로 수술하였습니다. 마비되었던 부분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조희순 집사 - 오른쪽 어깨수술 (회전근개파열) 회복과 재활을 위해, 왼쪽 어깨와 팔목 통증 치유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주 묵상

아래의 묵상 질문들을 활용하셔서 들었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1페이지의 <이번주 은혜의 말씀>과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을 간단히 적어 보세요.

2.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인간의 정체성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3. 묵상한 말씀을 통해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나 소망을 품게 된 말씀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에 2페이지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 ## 주간소식
- 담임 목사님의 한국의 모든 일정과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교회에서 11월 중순 (11/19 - 11/23)에 있을 계시록 말씀 사경회를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집회를 주위에 알리기 위해서 포스터와 집회광고 전단지를 로비 입구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특히 구역장님들께서는 사는 지역에 포스터를 배치할 수 있다면 가지고 가셔서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회를 위해 교우들의 많은 협조와 찬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 주일에는 11월 정기 행정 위원회로 모입니다.
 - 다음 주일에는 주일학교 Harvest Festival 가을 행사가 있습니다. 오후 4-6시까지 교회 농구장과 잔디밭에서 할로윈대신 아이들과 부모님, 친구들이 함께하는 가을축제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게임, 간식, 저녁식사가 준비될 예정이오니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께서는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 다음 주일에는 썸머타임이 해제되는 주일입니다. 교회 예배시간은 바뀌는대로 드립니다.
 - 새가족 소개
 - 서우석, 김명희 성도: 싸이프레스 구역과 4·5남선교회, 4·5여선교회에 소속이십니다.
 - 심화용, 심성희 성도: 싸이프레스 구역과 4·5남선교회, 4·5여선교회에 소속이십니다.
 새롭게 등록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관심과 환영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나성교회 삼나소식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나성교회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교회 삼나소식

<http://samsungch.or.kr/samnanews/>